

# 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의 거짓말

(2016/7/11기자간담회자료중발취)

(이탤릭체는 박유하의 주장이나 책 인용)

## 1.<정영환저서를 둘러싼 언론보도> (2016/6/30-7/7)

정영환의 주장과 출판사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우경화로 인해 일본인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할 할 만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딱 부합하는 책이 제국의 위안부. 더욱이 한국인 저자가 썼으니 일본언론이 대대적으로 다루고 예찬을 했죠.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정영환 인터뷰. 한겨레)

“<제국>은 극우 <산케이신문>이나 우파 <요미우리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같은 리버럴 매체들도 격찬하는 가운데 1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한겨레,)

“한미일 주류이익에 부합”(한겨레)

“위안부의 평균나이가 25세”라고 했다”

“피징용자 미수금을 위안부문제로 오인” (116—125, 한겨레,)

“한국어판에 없는 주장/인용.뉘앙스를 달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국인의 비판을 피하려는 차원” (연합,한국)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위안부배상을 추진했고 한국이 거부했다는 박교수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도 사료검증으로 밝혔다”(한국.7/1)

“일본어판은 양국관계가 정체된 책임이 전후 일본의 보상과 사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한국측에 있다고 적는 등 일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가필”(연합,7/1)

“동족이나 애국을 운운한 것은 위안부의 말이 아니라 일본군의 말”(국민)

“박교수가 들려주고자 했다는 위안부의 다른 목소리란 일본군들이 말하는 위안부이야기이고 일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안부 이야기”

“법적책임은 없다는 견해는 일본우익의 입장과 맥이 닿는다”

“사료오독/취사선택/잘못된 이해”(연합,7/1)

“우익만이 아니라 좌파와 자유주의자에게도 환영” (연합,7.1)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비판이 없는 것은 사회전반으로 퍼진 은근한 우경화 영향”(연합,7.1)

“환영받는이유는 전쟁과 식민지배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내역사수정주의의 흐름에 들어맞기 때문””역사수정주의에 리버럴까지 동조”” ‘리버럴이 보수파에 합류’ (연합,7/3)

“일본극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일본지식인사회의 “지적퇴락” (연합,한겨레)

(한일합의에는) "피해자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

"센다가코의 책에는 동지의식이 없다" (국민.7/1))

## 2.<제국의 위안부>는 어떤 책인가

피해자면서 협력자가 되도록 만든 제국주의와 동족을 가해자로 만든 식민통치 비판.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책.

한국/일본/정부/민간/부정자등 "다수에게 말 걸기- 다수의 청자-다이얼로그 지향

당시를 산 이들에 대해 단정/규탄하기 전에 생각하기- 역사인식에서는 동시대인물들의 정황및/심중에 대한 상상력 필요

"변명적기술"(36)이라는 정의 생각은 이 책의 형식에 대한 몰이해. 단죄적/법정주의적/징벌적 사고

---역사인식이란 대화. 자신을 알리고 이해 받고 상대를 이해하는 일

"반역사성"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국정/민정)역사관을 지향하는 사고를 증명.

"피해자가 부재하는 화해"라는 인식은 피해자상을 단일화한 것.

<제국의 위안부>는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일부를 배제해 온 운동과 연구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당사자--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적대의식을 키워가는 차세대를 위해

\*식민지체험의 간접트라우마를 갖게 된 후에,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자신, 한국인들을 위해

## 3. 정영환 저서의 근본적 문제

--근거없는 단정과 비틀어 읽기로 독자들의 분노/불신유발

### 1)도덕적 의구심을 유발하는 레토릭

"(쟁점을) 살짝 바꾸기 때문에" (37)

"사실에 관한 논의를 이미지문제로 살짝 바꾼다"(57)

"애매하게""기묘하게"

"논점을 살짝 바꿔 버리기까지 한다"(57)

"속임수"(58) "애매하게 처리"(59)"레토릭"

"성노예제의 개념을 성노예의 이미지의 문제로 살짝 바꾸는 것"(65)"불성실한 수법"(65)

"바꿔치기"

## 2) 근거없는 추측과 비틀어 읽기로 독자를 오독으로 유인

“위안부연행에 일본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듯이 읽히는 부분이 있다”(60) <“두가지 기술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모순되는 지적을 한 것인데 아마도 박유하의 실제주장은 후자일 것이다”

“위안부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모집자체를 중단해야 했을 것’ 이라는 기술은 공급이 따라갈 정도라면 군위안소제도에 문제는 없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56)

올바르게 읽기 위해 “논지의 재구성”을 해야 한대거나 “터무니없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은 터무니없는 왜곡 혹은 선입견(서경식/윤건차등 재일교포지식인의 <화해를 위해서>비판의 문제의식 답습)에 의한 곡해

## 3) 우경화 콤플렉스 / 냉전적사고-

(하타이쿠히코의) “일본군무죄론과 기본적으로는 동일”(66),

“부정론자들의 담론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계승”

“박유하가 전개한 논리는 고바야시 요시노리나 산케이신문으로 대표되는 명확한 역사수정주의 뿐 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90년대이래로 일본의 지식인들이 생산해 온 담론에 적지 않게 의거”(40)

<우익>에 연결시키는 일로 독자의 적개심 유발 .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오른쪽에 세워 비난. 결과적으로 “양심적” 일본지식인마저 의심하도록 만드는 선동성.

역사에 대한 재고찰을 “역사수정주의”로 간주 (박노자.한겨레.2016/7/3) 혹은 우파로 모는 담론의 빈곤.

폭력의 사고/지식인의 대중화?/ 학문이라는 이름의 테러

## 4) 기존연구/사고에 무조건 대입시켜 왜소화.

학제적 연구에 대한 몰이해. 제국의 위안부는 메타역사서.

## 4. 치명적 오류 혹은 거짓말

### 1) “식민지 지배책임에 관한 인식에 다대한 혼란 초래”(39)

“전후사의 긍정을 바라는 내셔널리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주장 때문에 일본우파뿐 아니라 이른바 “리버럴”에게도 높은 평가” <제국의 위안부사태란, “일본군무죄론에 의한 대일본긍정소망과 전후일본의 긍정소망이라는 두개의 역사수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망이 낳은 산물” (167,) “제국의 위안부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구실을 일본사회에 부여”(174) “책임부정론자 담론을 계승”(정,40)“식민지주의 이데올로기에 친화적”(141,이상 정영환)

일본지식인들의 평가를 모두 거짓이나 포즈로 생각하는 편견과 왜곡.일본에서의 평가를 거꾸로,혹은 자의적으로 선택해 전달, 박유하와 현대 일본지식인에 대한 불신 야기.

이하는 박유하의 저작들에 대한 평가. 산케이나 요미우리의 평가는 없었음.

박유하의 저작은 학문적인 수준도 높고, 시사문제 해설서로서도 균형이 잡혀있다. 그런데다 읽기 쉬운 문체로 쓰인 보기 힘든 우수작이다. 한국과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오해,무지, 혹은 감정적 대립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역사문헌이나 여론조사등의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책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출판되었다는 것은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뻐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국가 혹은 민족간 화해를 가져오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이리에 아키라, 하바드 대 명예교수,2007. 오사라기지로 논단상 평)

"위안부문제에 관한 전면적, 실증적, 동시에 윤리적인 분석이다"" 이책만큼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이성적으로 검토한 책은 없다, 역사적인 위안부발생구조와 그 실태해명부터 위안부문제의 발생,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치과정 각기의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의 분석, 나아가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향한 제언까지"" 경청할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 적혀져 있어"" 성노예냐 매춘부냐 하는 인식에서도 그리고 강제성 문제에서도

안이한 단순화를 허용하지 않는 다면적인 측면을 밝히고 있다. 여성을 수단화 물건화 도구화하는 구조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표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심축이다."(다나카야키히코, 도쿄대 명예교수,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심사평)

"위안부와 군대라는 관계로부터가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틀 안에서 인간 정신이 어떤 양상이었는지의 문제를 파헤친 작품"(가마타사토시, 저널리스트,이시바시탄잔 기념 와세다저널리즘 대상 평 )

"단순한 전시하의 인권침해로 보는 견해보다도 식민지주의, 제국주의로까지 시야를 넓혀 문제를 파악하는 날카로움 이 있다. 그것은 전시하의 인권침해적 범죄라는 이해보다도 엄중한 물음을 품고 있다. 박유하는 과거를 미화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역사수정주의자의 시점과는 정반대의 시선을 위안부피해자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나카자와 게이)

"이 책의 평가해야 할 점은 제국, 즉 식민지 지배의 죄를 전면에 끌어낸 데있다"(우에노)"거시적인 규정성을 주시하면서도 미시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여기에 존재하는 중간적 차원의 상황을 꼼꼼하게 봐 가는 것이 식민지 지배를 생각하는 시각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의 진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현재의 식민지연구의 하나의 흐름을 박유하는 잇고 있다고 생각한다"(아라라기 신조 조치대 교수)

"일본을 면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선입견을 빼고 전체를 읽어 보기만 한다면 생길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면죄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일부사람의 독해는 명백히 오독이며 이 책을 악용하는 것""이러한 측면의 강조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길을 열어 줄지언정,일본의 면죄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은 없다"(니시마사히코 리츠메이칸 대 교수)"제국의 위안부는 민족과 젠더가 착종하는 식민지 지배라는 큰 틀에서 국가책임을 묻는 길을 열었다" (가노 미키요 게이와대학 교수)"이러한 구조야말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커다란 죄악,그리고 여성의 비애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박유하씨가 동지적관계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그렇게 해석"(와카미야 요시후미 주필)"

"이제 물음은 일본을 향하고 있다"""일찍이 구미에 추종했고 강자로서 아시아를 지배한 일본은, 타자를 지배하는 서양 기원의 사상을 넘어서서 국제사회를 평화공존으로 가져갈 가치관을 보여 줄 수 있을것인가? 한국의 이해를 얻으며 도전하고 싶다" (야마다다카오 마이니치신문 칼럼니스트)

대부분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으로 읽고 있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오독하는 자는 누구인가?

### 2) "일본군무죄론" / "업자주범론" / 일본군과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했다

업자가 주범이다 (53)

"일본군무죄론의 여섯가지 주장과 정확히 일치"(49) "일본군책임부정" (51)"군의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63)"위안부가 국가의 노예였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한다"(54)"위안부의 모집을 지시한 것"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57)일본군의 책임을 "발상.수요.목인 한정적 책임만 인정" "일본군무죄론과 기본적으로는 동일"(66)

<제국의 위안부>에 기술된 일본/군/부정자비판 (142-164)을 읽는 것처럼 왜곡.

"법적책임"에 고집하려면 업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뿐

업자에는 일본인도 존재. 여성들을 돈벌이 도구로 삼아 착취한,"계급"책임을 물으려 한 시도

이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발췌.

일본군이 장기간 동안 전쟁이라는 '비일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병사 들을 '위안'한다는 명목으로 '위안부'라는 존재를 발상하고 모집한 것은 사 실이다. 그리고 군에서의 그런 수요증가가 사기나 유괴까지 횡행하게 된 이 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타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은 이 문 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주체이다. 더구나 규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 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본군의 책임은 크다. 목인은 곧 가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군의 수요를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자국의 여성들을 지배자의 요구에 호응해 머나먼 타국으로 데려다놓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시에 이런 일을 단속하고 처벌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행위야말로 '범죄'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범죄행위'로 규탄하는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업자들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2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아니 2000명 이라 해도,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것이 '식민지'에 대한 일본 제국권력의 결과인 이상 일본에 그 고통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을 직접 '동원'한 것이 업자들이었다고 해도, 또 그들이 '가라유키상'처럼 유괴되거나 자발적으로 팔려갔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

(50쪽)

업자들이 과도한 착취를 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것도, 군이 위안소의 '올바른 경영'을 지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위안소에서 폭행 등이 없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위안소 설치와 이용의 책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2쪽)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런 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36쪽)

물론 보수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설령 보수를 받았더라도 그 보수는 그녀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위안부'들이 '비싼 요금'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위안'이었던 '매춘'이었던 보수가 혹 높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그만큼 그일이 모두가 꺼리는 차별적이면서 가혹한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비싼 요금'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 장소가 목숨을 저당잡혀 있던 전선이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몸값을 저당잡혀 있는 신세였다. 또 그 착취의 주체가 설령 포주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착취구조를 묵인하고 허용한(간혹 그 구조를 바로잡으려 한 군인도 있었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로 보아야 한다) 군의 상부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145-146쪽)

물론 이 소설 속의 장면은 위안소의 규율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니 예외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일 뿐 '조선인 위안부'에게 원래 요구된 역할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일 역시, 군인들의 대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적'인 사회 인식과 구조가 만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식과 구조를 만든 일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148쪽)

하지만 위안부를 모집한 중심 주체가 민간인이라 해도, 또 모집하는 데에 사기나 납치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부 역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려 했다 해도 불법적인 수단이 자행되는 시스템 자체를 방기했다면 시스템을 유지시킨 책임이 군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군이 위안부 모집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분명히 군이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은 밀수품을 막으려는 국가의 태도에 비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군은 이때 소비자가 밀수품을 사지 않도록 밀수품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만 정식 관세를 내면 통과시키는 식으로 수입 자체는 허가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에 대해 감시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직접 관리와 개선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군이 성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도, 일본군이 상품과 그것이 유통되는 시스템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안부'가 임신했을 때 낙태시키는 일을 맡았던 한 군의가 '나는 검사관이라는 무기=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http://www.ne.jp/asahi/tyuukiren/web-site/backnumber/05/yuasa\\_ianhu.htm](http://www.ne.jp/asahi/tyuukiren/web-site/backnumber/05/yuasa_ianhu.htm)). 그런 식의 일방적 권력의 존재는 군이 시스템을 '관리'한 관리자라는 사실, 다시 말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군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이 물리적으로 행사한 '강제연행'을 글자 그대로 '강제' '연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기든 납치든 업자와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빈번했던 위안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살인교사와 비슷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군인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전쟁터가 아닌 식민지는 아직은 '일상'이 유지된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법'이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징병이든 징용이든 구성원의 의지에 반한 '강제적' 모집 행위조차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 식민지에서 무차별적 '강제연행'은 없었던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행위를 '유법有法'화해도 문제가되지 않는 비일상적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온건했고 좋은 통치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온건하고 좋은 통치란 어디까지나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통치가 총체적인 '온건통치'였던 것은 일본 국가에 대한 복

종이 전제된 공간에서의 일이었다. 정신대 모집은 '법'을 적용시켜 합법화하면서 위안부 모집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식민지에서의 '온건통치'의 임계선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앞에 본 소설과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납치(수용)공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전쟁터'이자 '국가' 바깥의 공간이어서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하는 '법'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모집에서 업자와 포주들이 전면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그래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온건통치'의 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온건통치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전담시켜 그들을 동족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 식민지에 살았던 일본인들은 조선을 지배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건, '지배'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언제나 저항과 반발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체제 '사상범'을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작동시키는 일로 '법'망 안에서 가능했지만, 식민지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것은 '온건통치'를 표방하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니,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군의 관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21군 사령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내무성에 400명, 대만 총독부에 300명의 여성을 모집해주기를 요청한 경위를 나타내는 자료(요시미 요시아키, 2007. 5.) 외에도 위안부의 증언과 군인이 남긴 다수의 기록에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의 관여는 명백히 드러난다. 모든 위안소가 '군이 설치한, 군인·군속 전용 제도'(위의 글)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군이 위안소를 필요로 하고 이용한 이상 위안소에 대한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위안부' 이동에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두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군이 보호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매뚜기」는 그 이동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는 것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본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권과 유사한 국가의 허가증이 필요했다. 그런데 일본인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출국을 '21세 이상의 경험자'로 정해놓았지만, 조선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요시미 요시아키, 2009년 여름). 이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의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51-154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조선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당한 당신한테 잘못이 있다고 가해자가 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의 주체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조선은 멸망 직전'이었는데 일본이 구해준 것이라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강한 자의 논리일 뿐이다.

설사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갈등 해소는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이들은 식민지배를 하게 된 '이유'만 강조하고 싶어하지만, 상대방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한 대화는 결국 단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화에는 상대방의 긍지를 생각하는 상상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죄와 보상은, 이제까지 부정해왔던 이들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163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묵인한 국가에 있다.

(191쪽)

### 3)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양보하라고 했다

--당사자 포함한 협의체 제안

“대화로서 일본과 마주해야 한다”(제국의 위안부,311)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제국의 위안부,312)

#### 4)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이 다르다

일본어판은 한국어판의 단순번역이 아니라 일본인독자를 향해 다시 쓴 책. 취지/표현이 “기본적으로”다르지 않다 했을 뿐, 다시 쓴 책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건 당연.

장정일' 박유하죽이기-이명원/정영환의 오독" 참조

[http://www.huffingtonpost.kr/jeongil-jang-/story\\_b\\_9899800.html](http://www.huffingtonpost.kr/jeongil-jang-/story_b_9899800.html)

#### 5)일본인위안부와 조선인위안부를 동일시했다”

표면적인 “동족”의 틀 아래 존재한 차이/차별 구조, 고통 지적

물론 이런 기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 이후 내내 그렇게 ‘기억’을 소거시키며 살아왔다.

(67쪽)

물론 거듭 말하지만, 사랑과 평화와 동지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소’가 지옥 같은 체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명예와 칭송이 따르다 해도 전쟁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지옥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을 연민과 공감, 그리고 분노보다 운명으로 돌리는 자세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

(76쪽)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지만,** ‘일본’ 군인만을 위안부의 가해자로 특수화하는 일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페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둔 운동이었음에도 ‘일본’ 비판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남성과 국가와 제국’의 문제로** 다루는 일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 다른 나라 역시 이 문제에서 무죄일 수 없음에도 그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셈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 전쟁 상대였던 ‘적국의 여성’과 본국·식민지·점령지의 여성들이 처했던 위치는 다르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빨래’ 같은 허드렛일을 해주거나 ‘간호사’로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박유하, 2009; 하야시 히로후미, 2010).

한 군의는 “내가 ‘위안부’를 처음으로 본 것은 거류민 여성에게 위생/응급처치 교육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든지, ‘너는 천황 폐하를 일본인과 똑같이 섬길 수 있어서 기쁘지?’ 하는 식으로 깔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http://www.ne.jp/asahi/tyuukiren/web-site/backnumber/05/yuasa\\_ianhu.htm](http://www.ne.jp/asahi/tyuukiren/web-site/backnumber/05/yuasa_ianhu.htm)). 일본의 지원운동 방식은 이런 상황과 심리가 보여주는 ‘식민지인의 이용과 차별’의 교묘한 구조 역시 보지 못하도록 했다. ‘위안부’가 ‘간호사’를 겸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두고 그저 “간호사’로 만들어 당국이 연합국에게 위안부의 존재를 은폐하려”(『교도통신』, 2008. 7. 31.) 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정식 군속으로 임명해서 위안소의 존재도 감추는 동시에 함께 돌아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같은 기사)이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위안부의 ‘동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그녀들은 전시에 이미 간호부로 일하고 있었다.

‘성노예’라는 단어는 ‘조선인 위안부’가 처한 그런 복잡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한다. ‘동지’적 관계를 직시하는 것이 꼭 ‘일본군’을 면책하는 일은 아닌데도 이 부분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은, 일본의 지원자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보지 못했거나 한국의 정대협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불리한 사실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면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어도, ‘조선인 주제에 봉대를 잘 감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별감정은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차별감정을 보기 위해서도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의 다면성은 오히려 직시되어야 했다.** 명확하게 보는 일만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주체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지’적 관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만을 고집했던 이들을 무조건 규탄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응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했다. 위안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차별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동지적 관계’는 우선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지원자 측의 운동가나 연구자들 역시 그런 사실은 눈감았거나 보지 못했고,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그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것은, 명확한 ‘굴종’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강요당한 ‘식민지’의 복잡한 구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와 제국’ 비판이 앞선 나머지 식민지의 미묘한 심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동지적’ 상황을 그저 예외적인 것으로서 배제해버린 일은 ‘동지적’ 측면에만 혹은 ‘매춘부’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려 했던 이들의 반발을 불렀고, 대립을 심화시켰다. 말하자면 위안부의 증언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은 일, 다시 말해 위안부의 ‘피해’에만 주목하고 나머지는 외면했던 일은 일본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137-139쪽)

조선인 위안부들은 이렇게 살아 있는 군인을 위안했을 뿐 아니라 죽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했다. ‘피묻은 군복’을 빨아 다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차하면 함께 싸울 수 있는 훈련까지도 한 이들이 조선인 위안부였다. 그렇게 그녀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때로 운명의 **‘동족’(후루야마 고마오, 『하얀 눈밭』, 14쪽)**으로서 일본의 전쟁을 함께 수행한 이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그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말은 때로 그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하게 다룬 데에 대한 사죄의 표현이어야 한다. 군인의 폭력은 표면적으로는 ‘내선일체’였어도 차별구조는 온존시켰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만든 것이기도 했다.**(162쪽)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땀겨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

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207쪽)

'네덜란드'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과 조선인 여성은 일본군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다르다. 일본군에게 네덜란드 여성은 '적의 여자'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여성은 점령지의 여성이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그녀들이 입은 피해의 형태는 기본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그런 기본관계를 벗어난 관계도 얼마든지 있었다.

(265-267쪽)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을 뿐, '위안'이라는 이름의 노동이 대부분의 '위안부'들에게 성과 신체를 혹사당하는 가혹한 노동이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들에게 여전히 '위안부' 생활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84쪽)일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적의 여자'와는 다른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선인 위안부라도 그녀들이 놓인 정황은 다양했다. '조선인 위안부'란 식민지의 가난과 성적/민족적 차별의식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원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 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들이었다. 포악한 군인이었건 온순한 군인이었건, 그들의 운명은 다르지 않았다. 그건 그들이 남녀 간의 불평등, 민족적 불평등이라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도 헤이타이(주-군인)나도 헤이타이상, 나도 이리 산 것도, 고향을 떠나서 이리 산 것도, 천황을 위하여"(『강제 3』, 107쪽)라는 노래를 했다는 증언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은 함께 국가에 의해 고향을 멀리 떠나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79쪽)

물론 역으로 강제성 속에 자발성이 있었고 성노예의 이면에 매춘부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국적에 따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랐다.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은 그 모든 상황의 차이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율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다.

(143쪽)

병사들의 강간은 위안소라는 공공장소에서 '몇백 명이나 되는 줄을 서'는 일에 대한 염증이 만들고 있다. 말하자면 강간을 피하기 위해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군 상부의 의도는 군대의 숫자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시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의 강간 욕망은 그녀들이 '고작 조센삐'였기 때문에 생긴 욕망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여성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 '저 여자들하고 한 번 하'는 데에 '몇 시간이고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한 것은 상대에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그렇게,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뿐 아니라 조선인임을 경시하는 민족차별이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그 점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른 점이다.**

(147쪽)

'점령지의 여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피해를 끼쳐도 상관없는 여성이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위안소를 타국 군인에 의한 점령지에서의 강간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러시아같은 야만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야만'과 대조되는 위안소, 잘 관리되면서 지극히 '문명'적으로 보이는 그곳은 가난이나 그 밖의 이유로 차별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으로' 용인한 장소일 뿐이다. 공창을 합법화하는 발상 자체가 인간에 의한 인간(여성)의 상품화라는 '야만'을 정당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149쪽)

그것은 남성이고 군대이고 국가였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부'란 어디까지나 국가와 남성, 그리고 격리된 남성 집단을 만드는 전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긴 존재다. 위안부의 자발성이란,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선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폭탄이 터지는 최전방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욕구를 받아주어야 했다.

(159쪽)

그에 반해, 예외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인 위안부들은 대개 도회지의 좋은 시설에서 장교들을 중심으로 상대하며 상대적으로 편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리고 그렇게 조선인 위안부들이 더 많이 가혹한 환경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식민지의 여성이라는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이중차별의 결과로 일본 여성들보다 가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이 그녀들에게서 본 적극성이란 그런 상황이 만든 적극성이었다.

(161쪽)

한국의 기생집을 위안소와 똑같이 치부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위안소는 전쟁과 군인들을 위한 장소였다. 군인들이 쉽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군인'이라는 존재가 폭력에 길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증언들은 그런 폭력 역시 차별의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계질서에 길들여진 군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란 권력을 갖지 못한 종병이라도 권력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었다.

(163쪽)

일본인 위안부가 아닌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다는 것은 '조선'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식민지의 상황은 식민지배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성차별과 계급차별 이상으로 '식민지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었고, 고노 담화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답한 담화였다. 다시 말해 '고노 담화'란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에 응답한,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배'의 결과로 받아들여 사죄한 담화였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고노 담화에서 인정된 '강제성'은 네덜란드나 중국에 대한 강제성과는 다른 차원의 강제성이었다.

(176쪽)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빛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묵인한 국가에 있다.

### 6) 일본인 위안부의 애국을 조선인위안부 것인 것처럼 썼다

일본인임은 명시. 센다의 책에서 애국을 읽은 것은 박유하의 해석이며 조선인위안부도 등장. 애국의 틀하에 놓여 있던 것은 조선인위안부증언집에 존재하는 기술에 근거한 지적.

센다의 책에서도 한 군인은 이렇게 증언한다.

깜짝 놀란 건 지난濟南에 들어간 지 이틀 후에 어느새 작부가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진하는 부대 뒤를 땀을 흘리며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세 명인가 네 명이었는데, 거의 모두가 조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삭빠른 매춘업자가 전쟁수당을 받고 있는 군인들의 수당을 노리고 여자들을 모아 돈 벌러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각기 일본식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옷도 입고 오비를 들렀는데,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약삭빠른 업자의 지혜였겠지요. 군이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요구하거나 바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업자였겠지요. 남자는 주둔지 한쪽 구석에 판자를 박고 돛자리를 둘러쳤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영성하나마 집을 지어냈습니다. 거지들의 오두막집 같은 거지요. 밖에서 돛자리를 들추면 안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영성한 집이었습니다. 부대에 영업허가를 받지도 않았겠지요. 형태로 보서는 민간인이 마음대로 와서 제멋대로 장사를 하는 식이었을 겁니다.( 82쪽)

-----  
그런데 센다는 **“속아서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도 쓴다.**

그녀들이 부대를 따라 행동할 때는 양복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양복이라고 해봐야 먼원피스나 투피스였다고 한다. 그런 복장으로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나 자신의 일상용품들을 넣은 트렁크를 들고 군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습지대 같은 곳을 걸을 때 혹은 강을 건널 때는 훈도시(남성용 속옷 - 인용자)만 걸친 군인 옆에서 치마를 허리까지 걸어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조건은 군인들과 똑같았던 것이다.(89쪽)

센다가 '중군위안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러한 광경에 근거한 것이리라. 센다가 말하는 정경을 그대로 옮긴 듯한 사진도 실제로 남아 있다(33쪽의 <사진 2> 참조).

### 일본어판 (71-75), 한국어판 57-59 에 애국 사례 존재

'간호원도 배운다고 배웠지. 미국 사람이 뭉시가(비행기) 오는 거 같으면 총도 맞추면 이것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호다이(봉대)를 갖다가 어디 맞으면 어떻게 감으라 카는 거 그거 연신 배와주고 놀 여개가 없어요.'(강제 5, 139쪽)

거기가 일선이라도 군인들 큰 전쟁 나가서 돌아오면 기모노 입고 에프론 하고 고로사마데시타('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보통 때는 몸빼 입고 안 그러면 스카트 같은 거 입고. 기모노는 겨울거 여름거 봄거. 도시 가서 돈 주고 사야지. 인기까지(원문에는 괄호 안에 '송별회'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연예회'[여흥을 걸들인 술자리]의 잘못된 일본어발음일 가능성이 크다 - 인용자) 같은 거 하거든요.(같은 책, 140쪽)

조선인 위안부가 한 일은 성적 욕구를 받아주는 일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간호도 봉대감기도 배웠고 심지어는 총쏘기(총조립하기?)까지 배워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지탱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기모노에 에프론' 차림으로 맞아들이고 축하연에 참석하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대동아전쟁 나고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훈련받았지. 아침이면 다 나와서 모두 체조하고, 군대식으로 똑같이 훈련받았지. 신작로 운동장에서 훈련을 달 받은 받 있어. 수류탄 던지는 거 그거는 거 부대서. 부대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사람 있어.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지.(같은 책, 140쪽)

이것은 전쟁 발생 이후의 상황인데, 후에 다시 보겠지만 위안부들이 처했던 상황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달랐고 전선인지 후방인지에 따라서도 달랐다. 또한 어떤 군인을 만났는지에 따라서도 달랐다. 물론 그 어떤 경우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었다는 본질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안부의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지 않고는 결코 위안부의 총체적인 면모를 포착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일본인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위안부가 "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패전 전후에 위안부들이 부상병을 간호하기도 하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기도 했던 배경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사유리,스즈란,모모코와 같은 일본이름으로 불렸다(후루야마고마오, 하안논밭,12쪽)는 것도. 식민지인이 '위안부'가 되는 일이란 대체일본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제국,62-63).

한 일본인 위안부의 이야기는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가 될 때, 전쟁터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이런 몸이 된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전선의 위안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방 병참기지에 있게 되면 점차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할까 지쳐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전방에서는 군인들과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본인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그들을 진짜로 위로해주려고 생각했지요. 군인들도 우리를 보면 '수고가 많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후방으로 가면 정말로 공동변소 취급인 거예요.** 장교나 하사관들 중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센다 가코, 81~82쪽)

즐거웠던 일은, 글썄요. 내 경우에는 역시 시코쿠四国 사람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것도 아이치愛知라든가 마쓰야마松山라든가,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뻐지요. 군인들도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성관계를 빼고 고향의 축제나 산이 나 강 얘기를 같이 하곤 했어요. 군인들도 그걸로 만족했지요.(같은 책, 82쪽)

이렇게 '위안부'를 둘러싼 상황은 전방인지 후방인지에 따라 달랐을 뿐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도 달랐다. 자원한 '위안부'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이 군인의 '위안'—'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몸'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해야 할 만큼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온 그녀들에게는, 군인을 상대하는 '위안부'란 처음으로 자신의 앞을 자리를 '양지'에 내받은 일이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었을 뿐, '위안'이라는 이름의 노동이 대부분의 '위안부'들에게 성과 신체를 혹사 당하는 가혹한 노동이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들에게 여전히 '위안부' 생활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84쪽)일 수 밖에 없었다.

(59쪽)

..은 이웃한 장소에 위안소의 비참은 존재했다. 위안부들과의 평화로운 생활에 대한 군인의 말을 인용했던 센다 또한 이렇게 말한다.

하긴 이런 일은 전쟁에 어느 정도 인간적인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장교가 있는 부대나 주둔지뿐이고, 그 숫자가 적었던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부대나 주둔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 듯하다. 보통은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공동 변소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런 위안소에서는 여자들은 하루종일 팬티를 벗은 채로 “자, 다음!”, “다음!” 하는 식으로 무표정하게 숫자를 채우고 있었다고 한다. 군인들 역시 거칠었다고 한다.(81쪽)

## 7) 동지적 관계는 없다/‘동족’이란 일본병사의 시각이다

“동지적 관계”의 1차적 의미는 식민지화되어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구조를 지칭한 개념

군인체험을 한 일본인작가의 소설은 “위안부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일부 일본인 들에게 :“그들의 조상도 이렇게 썼다” 는 의미로 사용. 후루야마의 소설들은 실제 체험에 바탕한 이야기.

### 자료집 참조

“동족”이라는 단어가 일본군인의 말임은 명기. “일본인범주에 들어가게 된 조선인”/국가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온 개인이라는 의미. 동시에, 참혹한 정황도 기술(142-166)

후루야마는 “우리가 네이판 마을에 니퍼 하우스(니퍼야자 잎으로 지붕을 얹고 벽을 두른 집 - 인용자)를 만들고 3주 정도 지나자 조선인 위안부가 열 명쯤 왔다. 그녀들은 모두 사유리니 스프란이니 하는 꽃이름을 띤 유곽식 일본이름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가 만난 ‘조선인 위안부’의 말을 이렇게 기록한다.

“징용이라고 했어. 나 경상남도에서 밭에 있었거든. 그런데 징용이라고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야. 기차를 탔고 배를 탔지. 나, 위안부가 된다는 거 몰랐어.”

여유롭고 느긋한 성품이란 이런 걸 말하는군. 하루에한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운이야. 위안부가 된 것도 운이지.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도 운이고. 모두가 다 운이라고.”(「개미의 자유」, 84쪽)

여기에는 속아서 왔다면서도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과 “위안부가 된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간주하고 군인을 원망하지 않는 위안부가 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인 땅에서 자라나 자신을 ‘일본’의 일원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족으로서의 ‘군인’일 뿐 적국으로서의 ‘일본군’이 아니다. 그녀가 일본군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운’을 가진 ‘피해자’로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표할 수 있는 것도 그녀에게 그런



동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한테 나가 압박은 많이 받았지. 압박은 많이 받았지만, 내 운명이다.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고 내 운명이고, 나를 그렇게 한 일본 사람을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해.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주인이 돼갖구는 얼마나 나를 두들겨패는지 몰라. 손님을 안 받을라 한다구. 살이 아파싸서 죽었다. 막 눈물이 절로 나오는 기라. 밥도 못 먹지.(『강제 3』, 225쪽)

위안부 체험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이는 우리 앞에도 있다. 말하자면 똑같은 가혹한 '운명'을 겪고도 그 운명에 대한 '태도'는 위안부마다 달랐고, 지금도 다르다. 그런 그녀는 일본군이 아닌 업자를 '폭행'의 주체로 기억한다.

(75쪽)

조선인 위안부들은 이렇게 살아 있는 군인을 위안했을 뿐 아니라 죽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했다. '피묻은 군복'을 빨아 다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차하면 함께 싸울 수 있는 훈련까지도 한 이들이 조선인 위안부였다. 그렇게 그녀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때로 운명의 '동족'(후루야마 고마오, 『하얀 눈밭』, 14쪽)으로서 일본의 전쟁을 함께 수행한 이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그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말은 때로 그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하게 다룬 데에 대한 사죄의 표현이어야 한다. 군인의 폭력은 표면적으로는 '내선일체'였어도 차별구조는 온존시켰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만든 것이기도 했다.

(162쪽)

'조선인 군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는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했다는 것은 '위안'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상품화이자 계급화'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조선인 위안부'가 제국 내에서 놓여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인들에게 차별받는 대상이면서도, 그들은 말이 통하고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하며 같은 '동족'으로서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였다.

(294쪽)

## 8) 위안부의 평균연령을 25세라 했다/미성년자 존재를 경시했다

"박유하의 사실인식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다. 박유하는 미국의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일본인포로심문보고>제49호에 있는,버마 미치나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기록을 근거로 평균연령이 25세라고 주장한다.....20명의 징집당시 평균연령은 21.15세이며.....(중략)더욱이 포로가 되었던 당시의 평균 연령도 23.15세며 '25세'가 아니다."

"박유하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정, 67-68)

전체평균이 25세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제시

<미성년-20세 이하>가 아니라 대사관 앞 소녀로 상징되는 소녀. 14-5세?

동시에 소녀존재도 지적

실제로는 위안부들은, "내가 나이가 제일 적었지. 거 간 중에. 다른 여자들은 다 스무 살 넘었어"(『강제 5』, 35쪽)라거나 "우리 있는 데는 한 스무 명 남더라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많고 스무 살 다 넘고 전라도서도 오고 경상도서도 왔 더만"(87쪽)이라고 말한다. 증언한 본인 말고는 "스무 살 다 넘" 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위안부 들의 당시 나이는 오히려 '예외'였다.

거기 위안조(위안소)가 많아. 많으니까 공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 가면 다 남자 상대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 거기 여자들하고 다 얘기 해봤지. (중략) 나이가 다 고만고만해. 한 스무 살, 스물한 살, 최고 많은 게 스물다섯 살. 서른 살 최고 많더라고.(『강제 3』, 96쪽)

태평양전쟁 중인 1944년 8월에, 미얀마(버마) 미트키나 함락 이후의 소탕작전에서 **미군의 포로로 수용되어 전쟁정보국OWI의 심문을 받은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25세"**(『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후나바시 요이치, 2004, 296쪽에서 재인용)였다. 어느 조 선인 출신 일본군도 위안부들이 '스무 살, 스물한 살'이었던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아 '누님'으로 부르며 지냈다고 증언하면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정신대가 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2011).

(조선에서의 모집이 시작된 것은 1942년 5월 초, 업자들은 전방의 병원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붕대를 감아주고 사기를 북돋아주자는 등의 말로 여성 한 사람당 200~300엔의 돈을 건네주고 데려갔다. 이런 방식으로 300명 가까운 여성이 1942년 8월 20일, 랑군에 도착, 그곳에서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전방으로 보내졌다. 포로가 된 여성은 중국 국경에 가까운 미트키나에 있었던 '마루야마 클럽'이라고 불렀던 위안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25세. 자신들의 직업이 싫다고 말했고, 일이나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후나바시 요이치, 296쪽에서 재인용)

(83쪽)

## 소녀관련부분 기술

물론 어린 소녀가 위안부가 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어린 소녀가 위안소에 가게 되었을 때는 "어떤 군인이 몇 살이냐고 해서 열 네 살이라고 대답했더니 '젓이나 더 먹고 오지, 부모형제 보고 싶어서 어떻게 왔느냐'"(『강제 2』, 51쪽)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나이가 결코 평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대표적인 위안부상이 소녀로 정착된 것(위안부를 다룬 한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소녀 이야기>인 것도 그런 의식을 반영한다)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한 탓도 있지만 앞서의 20만 명 설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상이 우리의 피해의식을 키워주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언한 '위안부'들의 대부분이 십대에 강간당하거나 위안부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니 일본군이 '어린 소녀까지도' 상 대했다는 것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녀 위안부'가 위안부의 평균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일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위안부들 중에 어린 소녀가 있게 된 것은 '일본군'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강제로 끌려간' 유괴범들, 혹은 한 동네에 살면서 소녀들이 있는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우리 안의 협력자들 때문이었다. 위안부가 된 소녀들을 가족이나 이웃으로서 보호하기 보다는 공부라는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해서 공동체 바깥으로 내친 우리들 자신이었던 것이다.

(50-52쪽)

일제 시대에 어린 여성들을 꼬여 팔아넘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신문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37년 1월 11일자 『매일신보』의 기사.

김제군 월촌면 연정리 최재현(37)과 그의 처 이성녀(24)는 수일 전 서로 공모하여 동면 동리에 있는 김인섭의 둘째딸 양근(12)을 유인해다가 군산부 개복정 2정목 지나支那 요리업자 장우경에게 몸값 50원을 받고 작부로 팔고자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다 한다.(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55쪽에서 재인용)

첫 번째 증언에서 짐차에 태워 간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었다. 세 번째 증언을 한 소녀가 여기저기 전전하다 공장으로 가는 줄 알고 '위안부'가 된 나이는 열다섯 살이다. 이처럼,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가 된 경우는 대부분 주변 사람이 속여 데려가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보호공간이 되지 못한 경우다.

(53쪽)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정창화감독<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1965,참조)

(204쪽)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로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 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만, 표면적인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의 조선인 위안부가 그 두 얼굴을 갖는 것은 '식민지화'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식민지화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의 과거와 화해할 수가 없다

(295쪽)

## 9) 위안부문제를 한국정부가 포기했다

박유하가 지적한 것은 위안부문제가 아니라 개인청구권

## 10)조선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민족의 거짓말론은 일본군뿐 아니라 업자도 면책하며 말단의 민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담론인 것이다"(85)

"식민지의 거짓말"의 방점은 식민지. 해당부분은 제대로 읽으면 어디로 가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들의 슬픔을 강조한 부분(일본판에만 있는 이유) -초보적 오독

## 11)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일본이 바라는 위안부이미지를 써서 일본에 받아들여졌다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의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가 '감금해놓고 언제든 군인들이 무상으로 성을 착취했다'는 식의 것인 한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성노예와는 다른 존재다. 그런 상황에 노출된 이들이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이 처음부터 '위안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성노예'란 성적인 혹사 이외의 경험과 기억을 억압하고 은폐하는 말이다. 그들이 총체적인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측면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억을 은폐하는 것은 위안부의 전초인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위안부들이 자신의 기억의주인이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의 기억에 의해서만 존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주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

(117쪽)

2012년에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자신의 위안부 생활이 '성노예'로 말해지는 데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왔 으면서도 정작 그 명칭이 정착되는 데에는 반대한 것은 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이름이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노예'라는 호칭은 분명 '위안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위안부'의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그네들이 애써 가지려 했던 인간으로서의 긍지의 한 자락까지도 부정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131쪽)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지원자들은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해왔다. 물론 위안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거부할 수 없고 도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었다. 또 그녀들의 선택이 설사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적 강제' 속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이었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노예'가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안부'의 '자유'를 억압한 주체는 '일본'이나 '군'만은 아니다. 그녀들을 인신 매매 등의 수단을 통해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군에 넘겼으며 '위안부'들의 노동의 대가인 군표를 가로채는 형태로 관리했던 업자와 포주들이야말로 그녀들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구속한 주체였다. '군인' 이상으로 오히려 더 빈번하게, 더 가혹하게 '위안부'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업자와 포주들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상황을 '노예'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녀들의 '주인'은 군인이 아니라 '업자'이고 포주였다. 설사 그들에게 군인 이상의 권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안부'의 주인이 '업자'인 건 분명하다.

(135-136쪽)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는 우선 출신지가 '본국'인지 '식민지'인지 '적국'인지 '점령지'인지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

물론 역으로 강제성 속에 자발성이 있었고 성노예의 이면에 매춘부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국적에 따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랐다.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은 그 모든 상황의 차이를 보면서 결론을 내

려야 한다.

(143쪽)

## 참고자료

### 서문

다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2013/7)

"위안부 문제는 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나는 8년 전 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 야스쿠니·독도』 (뿌리와이파리, 2005)라는 책에서의 일이다. 나는 또 "일본이 주변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거기에는 이제까지의 비판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데에도 원인이 없지 않다"라고도 썼다. 그리고 한일간의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이고 그런 "복잡함"을 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들을 조금 깊이 볼 수 있다면 분노와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면 "그때 비로소 화해를 위한 논의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그때 바랐던 "생산적인 논의"는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한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일관계를 둘러싼 상황은 그동안 기본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안의 견고한 기억들"에 "화해를 지향하는 균열"을 내보려 했던 8년 전의 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그 책이나 또 다른 한일관계 관련 책들(『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공편저 『한일 역사인식의 메타히스토리』등)에서 내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민족주의 비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민족주의' 비판만으로는 한일 간의 갈등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 책의 시도가 실패한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책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왜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지' 를 물어야 하게 된, 그런 '복잡한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 책이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나빠졌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안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는 실은 결코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는 '위안부'에 관해 하나의 이미지만을 떠올려왔다.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야만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정보에는 때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20년은 그중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취사 선택해서 들어왔고 그에 바탕해 위안부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온 세월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 편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아프기까지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과 아픔을 공유하려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그런 불편함과 아픔을 거치지 않고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도 완전한 군인이지"("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246쪽)라고 말하는 위안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이 상징하는 '식민지의 모순'을 직시해야 하는, 아프기까지 한 불편함.

불편한 일을 굳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모습을 외면하는 사이에, '식민지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그 모습들을 왜곡해서 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 나선 이들의 대부분은 극도의 '험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험한감정은 특히 이 10여 년 동안 서서히 커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험한은 1990년대 초 이후의 역사 문제 갈등에서 한국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비난만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일본 사회에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험한파뿐 아니라 한국을 잘 알고 좋아했던 이들조차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한국과 소통하기가 힘들다고 느낀다."(지한파 교수) "그동안 일본에게 한국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알고 보니 짝사랑을 한 셈이다. 이제 그만 그런 감정을 버리고 한국을 보통 나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외교관)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언제까지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 이젠 한국이 싫어지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은가?"(대학생)

말하자면 한일 양국은 20여 년의 역사 문제 갈등을 거치면서 심각한 소통부재 상황에 빠져버렸다. 외교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한 지 일년이 넘었고, 현재 두 나라 국민은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갈등의 중심에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들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미 8년 전의 책에서 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사죄와 보상'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위안부들이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지원단체는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지원단체나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의 20년 동안에는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소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판단이 전부 옳거나 진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지원단체의 의견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도 한국의 교과서는 '결국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일 수가 없다. 그런 이상, 나는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그저 좋은 한일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양국의 이해를 위해, 나아가 동아시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온 이들이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적대와 대립의 언어만이 난무 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담론들이 마음 어린 이들을 상처 입히고, 마음을 단도록 만드는 것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해결'을 기다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는 '미군기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일본'만의 특수한 일로 생각하는 사고는 그런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평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운동이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